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문 은 식¹⁾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가운데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2,259명(남 1,140, 여 1,119)이다. 측정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또래애착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우울 검사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LISREL 8.54에 의한 경로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관련변인들의 우울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같은 수준으로 부적인 간접적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전체 효과)은 자아존중감, 양육태도와 또래애착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중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증진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우울, 양육태도,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1)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esmoon@kangwon.ac.kr)

I. 서 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전체 초·중·고생 97.0%(648만2천474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중고생의 16.3%인 105만4천여명이 정서·행동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도 4.5%인 22만3천여명에 달했고, 자살생각 등을 해본 고위험군 비율은 1.5%인 9만7천여명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관심군(18%)과 주의군(7%)은 초등학생(관심군 16.6%, 주의군 2.4%)이나 고교생(관심군 13.8%, 주의군 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3. 2. 7). 관심군은 검사결과 기준점 이상으로 학교 내 지속관리나 전문기관(병원,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고, 주의군은 관심군 학생 중 긴급조치를 요하는 학생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1차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파악된 학생 중 2차 검사에서 불안, 우울, ADHD 등 문제가 심각해 심층상담과 같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으로 분류된 초중고 학생은 전체의 4.5%인 22만 3천 989명이고, 이중에서도 중학생의 주의군이 7%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3~15세 국내 아동 및 청소년 79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적 요인을 탐색한 손병덕(2009: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은 심각한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우울은 비록 외견상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행, 일탈문제와 비교하여 간과될 수 있지만 주관적 고통감이 매우 커서 극단적인 경우 자살기도로 이어지기도 한다(김교현, 2004; 김태희, 신현균, 2011). 더욱이 아동·청소년기의 우울증이 성인기의 우울 증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Pine, Cohen, Cohen, & Brook, 1999; Weissman, Wolk, & Goldstein, 1999)와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는 우울에 대한 교육적·임상적 관심과 개입이 시급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외생변인, 내생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이다(Beck, 1976; Joiner, Alfano, & Metalsky, 1993). 우울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서장애로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장애를 가져 온다(제미영, 신인수, 최지은, 2012). 청소년의 우울은 가면 우울(masked depression)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다양한 문제행동들 예컨대 가출, 도둑

질, 무단 결석, 반항적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한다(Bemporad & Lee, 1988).

김선미 등(2012)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우울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논문 및 학위 논문 총 86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를 제시하였다. 재미영 등(2012)은 중학생 우울과 관련된 논문 60편을 메타분석하여 부모의 통제(김선자, 조옥귀, 2003), 양육태도(송현영, 2001; 이경민, 2005; 이금희, 2007; 정지영, 2009), 심리·정서적 요인(김민지, 2011; 배정숙, 2006; 임영숙, 2007; 하용숙, 2007), 애착(강승희, 2010; 이정수, 2006; 조혜진, 2006; 한승민, 2010)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변인들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 관련 요인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각 연구들이 몇 개의 요인들만을 선별적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우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나 상대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사라형선(2012)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간에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대인관계가 어려워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수용 수준이 높으면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형과 박경자(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또래 인정 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또래 인정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또래 인정에 기초해 자신을 긍정적

으로 평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이는 아동의 우울을 낮춰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윤경과 이지연(2011)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통제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우울 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통제가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기백(2013)은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 및 모와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외적 변인인 인간관계 변인(부모의 양육행동, 부모·또래 애착, 사회적 지지)과 개인의 내적 변인인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자기수용 등)이 중학생의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외적 변인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리라고 가정한다. 또한 선행연구들(김사라형선, 2012; 김지형, 박경자, 2010; 최윤경, 이지연, 2011; 한기백, 2013)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 및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김사라형선, 2012; 김지형, 박경자, 2010; 최윤경, 이지연, 2011; 한기백, 2013)은 부모 및 또래와의 인간관계(양육행동, 애착)를 동시에 고려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우울을 이해하고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제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경로로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전체 및 직·간접효과)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우울에 관련되는 변인들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네 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학생의 우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학생의 우울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우울이 인간관계(양육태도, 또래애착)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기본 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모형 설정에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들(김사라형선, 2012; 김선미 등, 2012; 김지형, 박경자, 2010; 제미영 등, 2012; 최윤경, 이지연, 2011; 한기백, 2013)은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2,259명(남학생 1,140명, 여학생 1,11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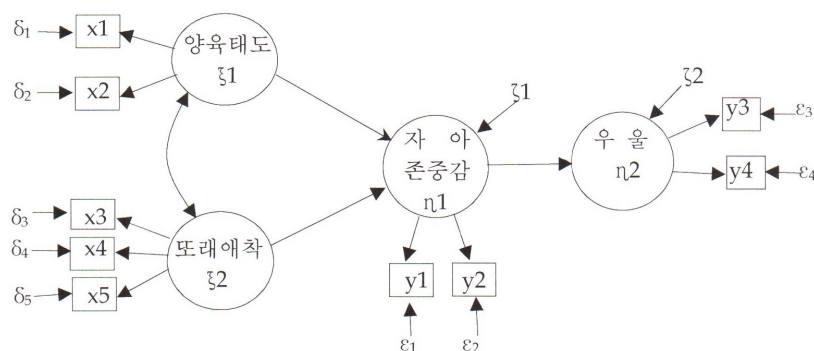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의 가설적 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로서 부모 양육태도 검사, 또래애착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우울 검사가 사용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이 검사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작성한 것이다. 2010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전체 문항은 8문항이고, 이 검사의 하위요인에는 방임(4문항)과 학대(4문항)가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학대 4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예: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방임의 문항은 모두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부모님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 즉 방임과 학대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전체 문항(8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면, 방임은 .77, 학대는 .86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검사

이 검사는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황미경(2010)의 또래애착 검사 13개 문항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4문항)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미경(2010)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김지연(1995)이 번안하고 수정한 애착척도(IPPA)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소외 3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또래애착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애착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전체 문항(9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2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면, 의사소통은 Cronbach α .84, 신뢰는 Cronbach α .79, 소외는 Cronbach α .7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검사

이 검사는 고려대학교 부속 행동과학연구소(2001)가 출판한 『심리척도 핸드북 II』에 수록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 문항이다. 이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전체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으로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5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로 나타났다.

우울 검사

이 검사는 김재환, 김광일 및 원호택(1983)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대표적인 문항 예로는 '기운이 별로 없다, 걱정이 많다, 외롭다'가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다. 우울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안정된 해를 구하기 위해 우울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두 개의 측정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1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ISREL 8.54를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상관관계수, 신뢰도 등을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55~.83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우울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이 .83으로 가장 높고, 반면 양육태도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간의 상관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40~-.55, 양육태도와의 상관이 -.22~-.30, 또래애착과의 상관이 -.21~-.37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를 알아보면, 편포도의 절대값은 .01~.96, 첨도의 절대값은 .12~.97로 나타났다.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이하이므로 단일 변인에 대해서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편포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아 다변량정규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Curran, West, & Finch, 1996)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이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 잠재변인이 중학생의 우울에 내생 잠재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N = 2,259)

잠재 변인	측정 변인	y1	y2	y3	y4	x1	x2	x3	x4	x5
자아 존중감	y1	1								
	y2	.39	1							
우울	y3	-.41	-.55	1						
	y4	-.40	-.54	.83	1					
양육 태도	x1	.32	.22	-.27	-.22	1				
	x2	.14	.27	-.30	-.22	.14	1			
또래 애착	x3	.38	.19	-.27	-.21	.37	.08	1		
	x4	.39	.19	-.27	-.21	.34	.10	.77	1	
	x5	.15	.34	-.37	-.27	.15	.36	.15	.19	1
M		2.02	2.34	3.10	2.93	1.84	1.84	1.94	1.85	2.09
SD		.53	.57	.64	.67	.56	.72	.53	.56	.73
편포도		.01	.06	-.36	-.13	.27	.96	.12	.43	.51
침도		.27	-.13	-.25	-.45	.40	.51	.97	.87	.12
내생변인		y1: 자아존중감 1 y2: 자아존중감 2 y3: 우울 1 y4: 우울 2								
외생변인		x1: 방임 x2: 학대 x3: 의사소통 x4: 신뢰 x5: 소외								

주: 모든 상관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설정한 가설적인 인과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을 알아보면, AGFI는 수정된 R^2 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대략 .8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홍세희, 2000). NNFI와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이며, 대략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조현철, 1996). RMSEA은 그 값이 $< .05$ 이면 좋은 적합도,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 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평가된다.

표 2. 가설적 인과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N = 2,259)

구 분	χ^2/df (ϕ)	AGFI	NNFI	CFI	RMSEA
적합도 지수	884.95/23 ($\phi < .001$)	.83	.86	.91	.14
적합도 기준	$p > .01$	$> .85$	$> .90$	$> .90$	$< .10$
적합도 판정결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표 2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CFI만이 적합하고, 그 외 AGFI, NNFI, RMSEA는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변인의 오차들 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하여 그 값이 38이상이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X 측정변인의 오차들 간의 수정지수가 84와 83간에 264.88, 85와 83간에 38.76, 85와 81간에 74.35로 나타나 이 경로들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수정사항들을 반영한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에서 χ^2 를 제외하고 AGFI, NNFI, CFI, RMSEA의 지수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χ^2 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기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NNFI는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가 작을수록 그리고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CFI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한다. 그러나 모형

이 간명성을 상실한 채 불필요하게 복잡해도 CFI는 좋아질 수 있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다른 지수(예: NNFI, RMSEA)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MSEA는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이다. 따라서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경로로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분석한 구조적 관계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생변인의 중다상관 자승치(R^2)가 자아존중감은 .53, 우울은 .65로, 관련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각각 53%, 65%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울의 전체 변량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이 65%로 양호한 편이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 모형에 의해 중학생의 우울은 상당한 정도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생변인들 간의 쌍두 화살표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 간에 유의한 상관

표 3.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N = 2,259$)

구분	χ^2/df (p)	AGFI	NNFI	CFI	RMSEA
적합도 지수	464.01/20 ($p < .001$)	.90	.92	.95	.09
적합도 기준	$p > .01$	>.85	>.90	>.90	<.10
적합도 판정결과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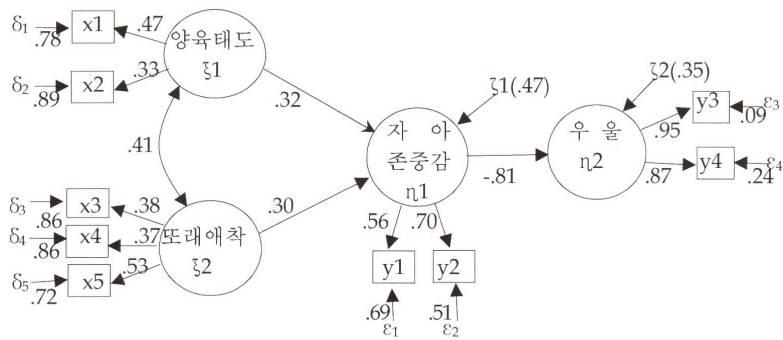


그림 2. 중학생의 우울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의 경로분석 결과

($r = .41,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나타난 중학생의 우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면, 외생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8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에 비슷한 정도(각각 $\beta = .32, \beta = .30$)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연구문제 2의 결과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우울에 대한 전체 효과는 모두 같은 수준($\beta = -.25$)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1$).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비슷한 수준

표 4.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예언 변인	중학생의 우울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간접효과 경로
양육태도	-.25**	.	-.25**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25**	.	-.25**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81**	-.81**	.	

** $p < .01$.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아 존중감이 우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 존중감과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우울 전체 변량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언변인들의 설명력은 6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최종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표 3)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학생의 우울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경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로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원만하고 만족스러울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완전 매개변인으로서 다시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긍정적 대처행동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최윤경과 이지연(2011)의 연구, 대학생의 자기존중감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와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한다는 한기백(2013)의 연구,

고등학생이 지각한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 수준이 높으면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즉, 자기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김사라형선(2012)의 연구, 초등학생의 또래인정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지형과 박경자(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부모로부터의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부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가 원만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지각한다하더라도(부정적 또래애착 형성)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의 우울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그림 2)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비슷한 수준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신뢰가 있는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전체 효과를 알아보면,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직접적 효과를 주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비슷

한 수준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부모와 또래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송인섭(2013)은 자아존중감의 증진방법으로 우선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소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Canfield(1990: Woolfolk, 2001에서 재인용)는 학생 자신의 시도와 성취를 수용하고 가치롭게 여기며,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가급적 경쟁을 멀리하고 자신의 선행 성취수준에 도전하도록 하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 및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방임과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뢰할 수 없고 소외감을 느끼는 부정적 또래애착만으로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중학생 시기에 대인관계 부적응 상황(예: 부모의 방임과 학대 행동, 불안정한 또래애착)에서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방임과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각각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등)를 측정하는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로서 다양한 영역(학습습관, 정서문제, 자아인식,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생활적응, 매체환경, 문화환경 등)을 측정하고 있어 원 검사 문항보다 적은 문항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또래애착 검사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것으로 총 25문항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9문항만으로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를 측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 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1). *심리 척도 핸드북 2*. 서울: 학지사.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

- 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 김민지 (2011). 남녀 중학생의 실제-이상 자기개념 불일치와 공격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선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3(3), 119-130.
-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 아동·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533-555.
- 김선자, 조옥귀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 김광일, 원호택 (1983). 정신과외래환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의 진단별 특성. 정신건강연구, 1, 150-168.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 박경자 (2010).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우울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아동학회지, 31(1), 83-99.
- 김태희, 신현균 (2011).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빈곤 가정 아동의 우울 취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존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07-927.
- 배정숙 (2006).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2013). 자아개념. 서울: 학지사.
- 송현영 (2001). 중학생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3. 2. 7). 초중고생 105만명 정신건강 경고등...22만 명은 심각.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int/YIBW_showArticlePrintView에서 2013년 2월 7일 인출.
- 이경민 (200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희 (2007).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지각된 어머니 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 (2006).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숙 (2007). 중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사고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2009). 중학생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행동통제, 기질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미영, 신인수, 최지은 (2012). 중학생 우울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0(2), 361-385.
- 조현철 (1996). LISREL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석정.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이지연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연구. 아동연구, 20(2), 235-251.
- 하용숙 (2007). 중학생의 분노수준, 분노표현방식,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인과적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백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 애착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065-3087.
- 한승민 (2010). 중학생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161-177.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mporad, J. R., & Lee, K. W. (1988). Affective disorders. In C. J. Kestenbaum & D. T. Williams (Eds.), *Handbook of clinic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p. 629-649). New York University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Joiner, T. E., Alfano, M. S., & Metalsky, G. I. (1993). Caught in the crossfire: Depression, self-consistency, self-enhancement,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113-134.
- Pine, D. S., Cohen, E., Cohen P., & Brook, J. (1999).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s of adult depression: Moodiness or mood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33-1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issman, M. M., Wolk, S., & Goldstein, R. B. (1999).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 1707-1713.
- Woolfolk, A. (2001). *Educational psychology(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1 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nfluencing Middle School Students' Levels of Depression

Moon, Ehun-Shi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ttachment to peers, self-esteem, and depression levels in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harvest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and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was appropriate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significant path based on the validation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wo exogenous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and one endogenous (self-esteem) variables ha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levels via three pathways, and the predictive power for the total variance of depression was 65%. Additionally, their self-esteem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s, peer attachment, and levels of depression. Second, for the total effect, the most contributive variable to their depression was self-esteem. The next most influential contributive variables were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attachment. These findings will provide a basic framework for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vention strategies to cope with their depression.

Keywords: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 peer attachment, self-esteem